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6.1.14.(수)
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 김남태 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 안병남 (02-3145-7065)
	은행검사2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 이지원 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 김혜선 (02-3145-7210)

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

- 사외이사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CEO 승계절차 · 이사회 독립성 등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 -

I. 실시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
- '23.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업계·학계와 함께 「지배구조 모범관행*」을 마련하였고, 은행권은 '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 중
 - * 4대 테마^①CEO 선임·경영승계절차, ^②이사회 집합적 정합성·독립성, ^③이사회·사외이사 평가체계, ^④사외이사 지원조직·체계) 및 30개 핵심원칙을 마련·제시
- 이후 은행권 지배구조는 관련 내규 정비, 위원회 구성 개선, 체계적 절차 마련 등 외형적·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
- 다만, 최근 이러한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,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*되고,
 - *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어 잦은 셀프연임 발생,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,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·감시 기능 약화 등
-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

II. 점검 실시계획(안)

- '26.1월중 **쏘 은행지주(8개사)**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
-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(내규, 조직 등)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,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

※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관련 최근 지적사례

- ▶ **A지주**는 Long-list 선정 직전 이사의 **재임가능 연령(만 70세)** 규정(지배구조 내부규범)을 **現 지주회장**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**연임**을 결정
- ▶ **B지주**는 내·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Calendar day로는 15일이지만, **Business day**로는 **5영업일에 불과**
- ▶ **C은행**은 BSM(Board Skill Matrix,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) 상 **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**(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 등) 하는 등 **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**을 왜곡
- ▶ **D지주**는 **사외이사 평가**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, 그 결과도 평가대상 전원에 대해 **재선임 기준 등급(우수)** 이상을 부여하는 등 **평가의 실효성**이 부족

III. 향후 계획

-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될 「**지배구조 선진화 TF**」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,
 -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
-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, 검사 등을 통해 **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**를 지속 추진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